ESG Hotspot

Sustainable Investing Analyst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자사주와 지배주주 지분율

- 자본시장 규제 강화로 자진 상장폐지 기업 등장
- 일본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후 비상장화 결정 가속화
-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사주 비중과 지배주주 지분율 동시 분석 필요

공개매수 시장에 등장한 자사주

최근 자사주 공시 의무 강화와 소각 의무화 가능성을 앞두고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텔코웨어는 보유 중인 자사주 비율이 44.1%로 높아, 전량 소각 시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에 따른 경영권 불안을 우려하여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은 일본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일본 정부는 PBR 1 배 미만의 저평가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자본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BO 를 통한 상장폐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사주 비중과 지배주주 지분율 함께 살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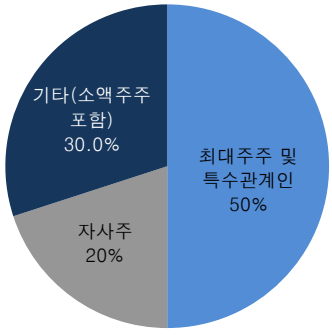
올해부터 시행된 「자기주식 보고서」 공시 의무화로 인해 자사주 관리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자사주 보유 비중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도 경영권 안정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은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의 3 단계 스크리닝을 통해 전략적 리스크와 투자 기회를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1 단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자사주 비중 합산 ≥ 70%,
최대주주 지분율 ≤ 40%

[2 단계] 자사주 비중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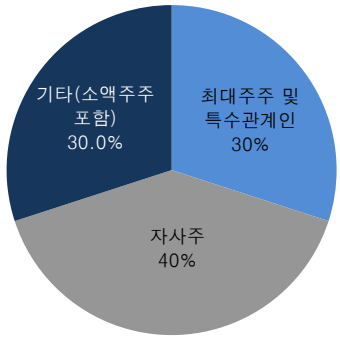
[3 단계] 자사주 비중 ≥ 50%

Case A 기업의 지분 보유 구조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se B 기업의 지분 보유 구조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공개매수 시장에 등장한 자사주

텔코웨어의 자진 상장폐지 결정

통신 솔루션 기업인 텔코웨어가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갖춘 텔코웨어가 돌연 상장폐지를 선택하며 공개매수 시장에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사주 활용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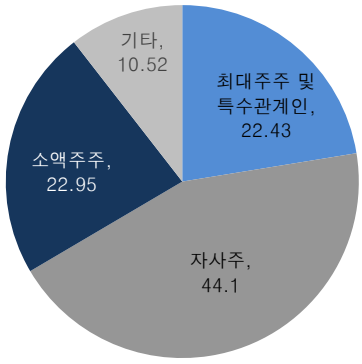
텔코웨어는 최근 제도 변화 – 자사주 공시 의무 강화와 향후 소각 의무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텔코웨어가 보유한 자사주 비율은 4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게 될 경우, 지배주주 지분율은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에 다소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점차 주주 연대가 힘을 얻고, 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장기업으로서 행동주의 타겟이 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를 선택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그림 1.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발표한 텔코웨어

공개매수자	・성명 : □ 회사 ■ 개인 □ 회사가 아닌 법인 ・단체 □ 외국인	
	・대상회사와의 관계 □ 대상회사 본인 ■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 □ 대상회사의 계열사 □ 기타(제3자 등)	
공개매수 대상회사명	텔코웨어 주식회사	
공개매수 목적	□ 경영권안정 □ M&A □ 지주회사요건충족 ■ 상장폐지 □ 기타 - 내용: 공개매수자는 대상회사 텔코웨어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본 공개매수를 통해 공개매수자 및 특수관계인, 대상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대상회사 잔여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 및 절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개매수대상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텔코웨어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매수 예정 수량(비율)	2,332,438주 (발행주식총수의 25.24%)
	매수 가격	주당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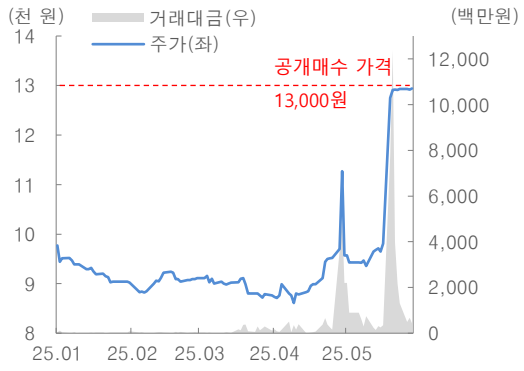
자료: DART, Research Center

그림 2. 텔코웨어 지분(%) 보유 구조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텔코웨어 주가 추이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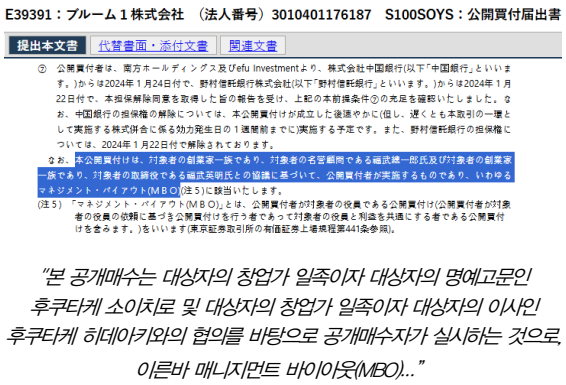
일본도 행동주의 대응 차원에서 MBO 등 전략적 상장폐지 증가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선택하는 현상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PBR 1배 미만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자본효율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M&A, MBO와 같은 전략적 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 및 출판 기업 베네세홀딩스는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장기적 구조개혁이 단기 실적 압박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주주와 경영진이 합의하여 지분을 점진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상장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공개매수 시장 확대 가능성

이렇게 일본의 공개매수 시장은 지배구조 개혁 압박에 힘입어 확장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정책 벤치마크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한국 또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라는 정책 목표 아래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4. 베네세홀딩스의 공개 매수 신고서



E39391：ブルーム１株式会社 （法人番号）3010401176187 S100SOYS：公開買付届出書

提出本文書 | 代替書面・添付文書 | 関連文書

⑦ 公開買付者は、南方ホールディングス及びefu Investmentより、株式会社中国銀行(以下「中国銀行」といいます。)からは2024年１月24日付で、野村信託銀行株式会社(以下「野村信託銀行」といいます。)からは2024年１月22日付で、本担保解除同意を取得した旨の報告を受け、上記の本前提条件⑦の充足を確認いたしました。なお、中国銀行の担保権の解除については、本公開買付けが成立した後速やかに(但し、遅くとも本取引の一環として実施する株式併合に係る効力発生日の１週間前までに)実施する予定です。また、野村信託銀行の担保権については、2024年１月22日付で解除されてお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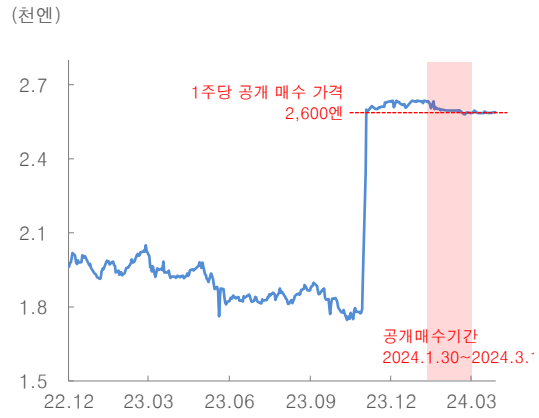
なお、本公開買付けは、対象者の創業家一族であり、対象者の名誉顧問である福武總一郎氏及び対象者の創業家一族であり、対象者の取締役である福武英明氏との協議に基づいて、公開買付者が実施するものであり、いわゆるマネジメント・バイアウト(ＭＢＯ)(注５)に該当いたします。

(注５) 「マネジメント・バイアウト(ＭＢＯ)」とは、公開買付者が対象者の役員である公開買付け(公開買付者が対象者の役員の依頼に基づき公開買付けを行う者であって対象者の役員と利益を共通にする者である公開買付けを含みます。)をいいます(東京証券取引所の有価証券上場規程第441条参照)。

"본 공개매수는 대상자의 창업가 일족이자 대상자의 명예고문인 후쿠타케 소이치로 및 대상자의 창업가 일족이자 대상자의 이사인 후쿠타케 히데아키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공개매수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이른바 매니지먼트 바이아웃(M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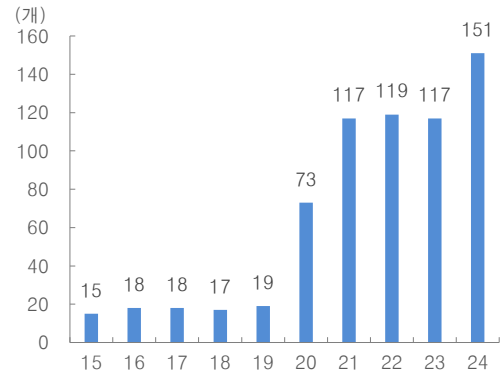
자료: 일본금융청 EDIN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베네세홀딩스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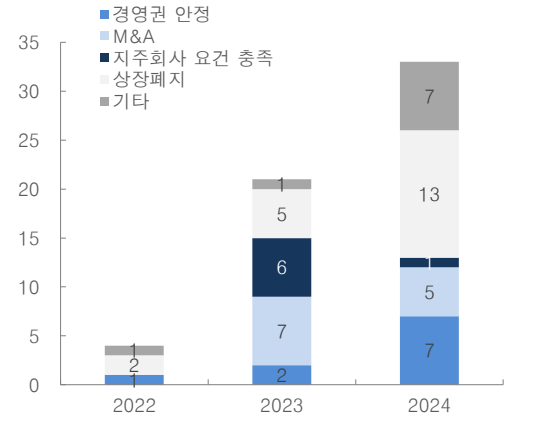
자료: 일본금융청 EDINET,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일본의 공개매수 건수 증가세



자료: EDIN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최근 3년간 한국의 공개매수 증가세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ESG연구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2. 최근 3년간 상장폐지, 경영권 안정을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기업 (단위: 억 원)

공개매수 공고일	코드	기업명	지분율(%)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시가총액
			합산	최대주주[주]	자사주			
2024.11.15	A950110	SBI 핀테크솔루션즈	78.4	74.2	4.2	1,847	201	590
2024.11.11	A090850	현대이지웰	35.0	35.0	0.0	141	716	1,263
2024.11.08	A029960	코엔텍	62.1	59.3	2.8	342	1,612	3,785
2024.09.30	A034300	신세계건설	72.7	70.5	2.2	7,956	265	1,104
2024.07.25	A287410	제이시스메디칼	29.9	28.3	1.6	529	748	9,863
2024.06.21	A005390	신성통상	78.0	78.0	0.0	745	3,104	2,664
2024.05.27	A119860	커넥트웨이브	65.0	50.1	14.9	380	913	6,409
2024.05.21	A009180	한솔로지스틱스	22.1	22.1	0.0	320	1,569	663
2024.05.16	A115390	락앤락	70.6	70.6	0.0	851	4,849	2,816
2024.02.19	A003410	쌍용 C&E	80.1	78.8	1.3	850	15,992	28,675
2024.02.16	A062860	티엘아이	61.5	36.3	25.2	50	86	573
2023.12.28	A006580	대양제지	95.5	66.3	29.2	42	1,323	875
2023.08.21	A068400	에스케이렌터카(주)	77.0	73.0	4	547	2,584	4,724
2023.07.19	A085370	(주)루트로닉	23.2	20.1	3.1	500	642	6,714
2023.04.12	A105630	한세실업	58.6	56.7	1.9	1,205	4,921	6,212
2023.03.22	A048260	오스템임플란트(주)	26.1	19.8	6.3	2,667	3,284	20,582
2023.03.02	A009240	한샘	60.9	28.3	32.6	375	6,886	10,496
2022.09.02	A285130	SK 케미칼	39.0	36.6	2.4	3,176	8,038	16,229
2022.05.13	A046110	한일네트웍스(주)	57.2	50.1	7.1	186	504	1,100
2022.03.29	A900290	GRT	63.6	63.6	0.0	5,323	4,116	832

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자료: DART, Quantiwise (공개매수 공고일 기준 직전 분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사주 비중과 지배주주 지분율

자사주 공시 의무화로 자사주 관리 투명성 강화

한국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자기주식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추가 취득 및 처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형태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불투명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특히,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과 대상자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자사주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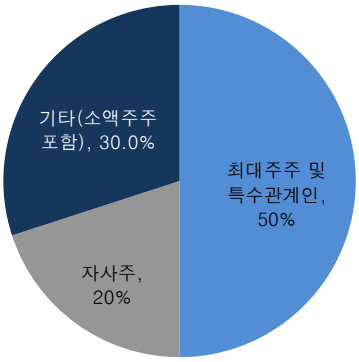
「자기주식 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자사주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사주 과다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사주 보유 비율만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 지분율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배주주 지분율에 따라 경영권 방어력 상이

예를 들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자사주 비중 합산이 7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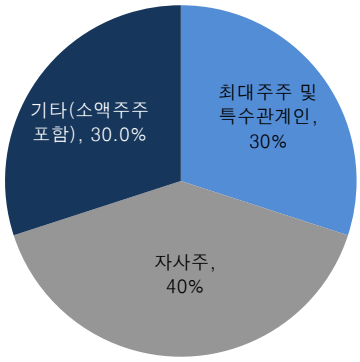
- Case A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자사주 비중이 20% 미만인 경우이다. 이런 기업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반면 Case B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약 30% 수준이고, 자사주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현저히 낮아져 행동주의 펀드나 주주제안 등 외부의 압박에 취약할 수 있다.

그림 8. Case A 기업의 지분 보유 구조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Case B 기업의 지분 보유 구조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사주 소각 시대, 주목할 기업을 찾는 스크리닝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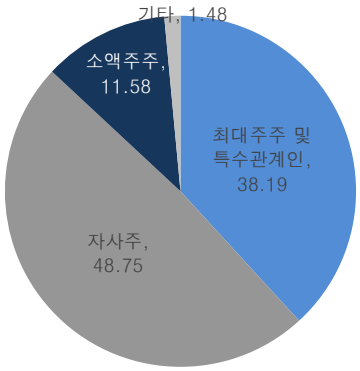
자사주 비중과 최대주주 지분율 동시 분석 필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자사주 보유 비중과 지배주주 지분율을 고려한 투자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스크리닝 과정을 제안한다.

- 1단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자사주 비중 합산이 7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40% 이하인 기업
- 2단계: 자사주 비중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 3단계: 자사주 비중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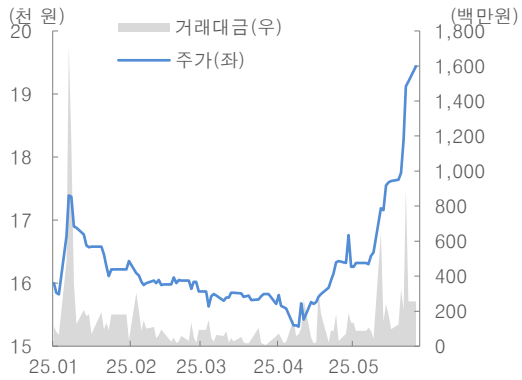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행 시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되거나 전략적 상장폐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림 10. 일성아이에스 지분(%) 보유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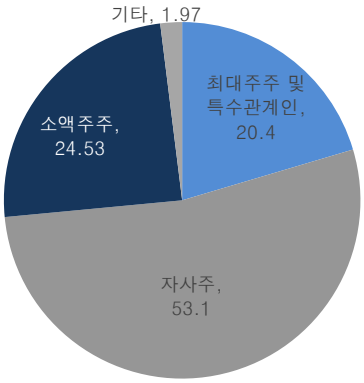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일성아이에스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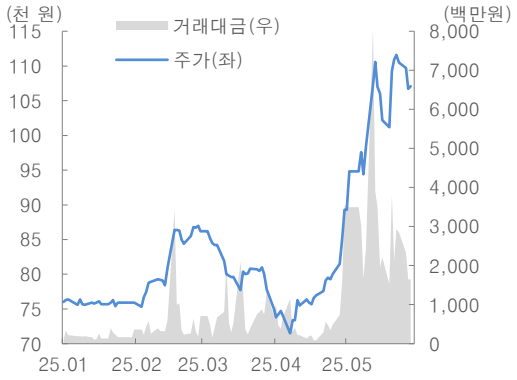
자료: Qual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신영증권 지분(%) 보유 구조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신영증권 주가 추이



자료: Qual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3. 자사주와 지배주주 지분율 합산이 70% 이상인 코스피 기업 (1)

(단위: 억 원)

코드	기업명	지분율(%)[주1]			추가 취득 및 처리 계획[주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시가총액
		합산	최대주주	자사주	취득	처분/소각			
A015360	INVENI	97.7	69.0	28.7	X	X	628	4,632	3,072
A031210	서울보증보험	93.9	93.9	0.0			1,547	47,926	22,762
A007700	F&F 홀딩스	91.8	91.7	0.1			2,075	27,924	5,640
A006040	동원산업	87.8	87.8	0.0			4,775	21,602	17,692
A019680	대교	87.3	66.6	20.7	X	X	606	3,060	2,012
A003120	일성아이에스	87.0	38.2	48.8	X	X	1,204	4,566	2,510
A000480	CR 홀딩스	86.7	74.7	12.0	X	O	1,634	6,080	2,485
A001020	페이퍼코리아	86.6	86.6	0.0			776	-12	1,290
A134790	시디즈	86.0	69.9	16.1	X	X	69	474	584
A000650	천일고속	85.9	85.7	0.2			17	-142	576
A030610	교보증권	85.7	84.7	1.0			1,435	11,440	8,410
A069640	한세엠케이	85.4	79.4	6.0			34	-669	473
A010580	에스엠벡셀	85.2	85.1	0.1			124	-394	1,362
A027970	한국제지	84.7	84.7	0.0			137	106	1,529
A001560	제일연마	84.2	51.4	32.8	O	O	168	1,072	956
A000590	CS 홀딩스	84.2	73.4	10.8	X	X	820	2,680	872
A085620	미래에셋생명	84.0	57.7	26.3	X	X	7,684	19,679	9,771
A016590	신대양제지	83.8	57.1	26.7	O	X	1,272	5,857	3,591
A014820	동원시스템즈	83.4	83.4	0.0			1,385	4,285	8,871
A058650	세아홀딩스	83.3	80.7	2.6			3,438	17,072	3,784
A373220	LG 에너지솔루션	81.8	81.8	0.0			35,736	12,406	676,260
A000680	LS 네트웍스	81.8	81.8	0.0			84	1,937	2,719
A016450	한세예스 24 홀딩스	81.5	79.7	1.8			870	3,542	1,556
A226320	잇츠한불	81.3	61.6	19.7	X	X	406	951	2,678
A003830	대한화섬	80.3	61.7	18.6	X	X	586	5,113	1,641
A462520	조선내화	80.3	80.2	0.1			659	214	1,532
A029780	삼성카드	79.8	71.9	7.9			6,997	61,071	50,167
A005610	SPC 삼립	79.7	73.6	6.1			586	4,576	4,539
A101140	인바이오젠	79.5	78.9	0.6			41	221	1,217
A000540	흥국화재	79.2	79.2	0.0			1,629	6,862	2,496
A003240	태광산업	78.9	54.5	24.4	X	X	5,229	41,826	9,664
A079900	전진건설로봇	78.9	78.4	0.5			194	940	7,026
A126560	현대퓨처넷	78.9	78.6	0.3			383	3,991	3,554
A082640	동양생명	78.7	75.4	3.3			2,352	15,968	8,794
A450140	코오롱모빌리티그룹	78.6	76.3	2.3			329	473	1,397
A084010	대한제강	78.4	47.5	30.9	X	X	1,415	8,101	3,922
A007540	샘표	78.3	48.4	29.9	X	X	281	1,970	1,278
A014710	사조씨푸드	78.1	78.1	0.0			46	1,590	983
A003570	SNT 다이내믹스	78.0	45.3	32.7	X	X	180	7,528	13,401
A005390	신성통상	78.0	78.0	0.0			445	3,734	3,945
A006390	한일현대시멘트	77.8	77.8	0.0			886	1,878	3,073
A192400	쿠쿠홀딩스	77.5	64.9	12.6	X	X	2,050	16,157	10,438
A000400	롯데손해보험	77.4	77.0	0.4			5,025	3,837	4,894
A004700	조광피혁	77.3	30.7	46.6	X	X	563	2,791	3,857
A120030	조선선재	77.2	51.8	25.4	O	X	408	1,727	1,260
A009160	SIMPAC	77.2	60.0	17.2	X	X	1,807	4,604	3,180
A005440	현대지에프홀딩스	77.1	77.1	0.0			2,711	31,279	11,350
A002620	제일파마홀딩스	77.1	73.2	3.9			539	514	1,313
A268280	미원에스씨	77.0	73.8	3.2			736	2,603	8,190
A004080	신흥	76.9	76.4	0.5			17	1,017	1,388
A016800	퍼시스	76.9	54.7	22.2	X	X	1,194	5,992	5,031
A003070	코오롱글로벌	76.6	76.2	0.4			4,762	5,126	1,676

주 1) 최대주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주 2) 자사주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의 5% 이상인 기업인 경우 공시 의무

자료: DART,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4. 자사주와 지배주주 지분율 합산이 70% 이상인 코스피 기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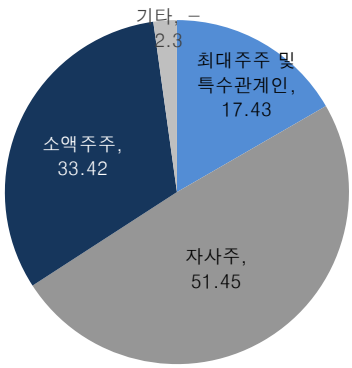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코드	기업명	지분율(%)[주1]			추가 취득 및 처리 계획[주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시가총액
		합산	최대주주	자사주	취득	처분/소각			
A006090	사조오양	76.3	76.3	0.0			420	1,674	815
A267850	아시아나 IDT	76.2	76.2	0.0			163	1,447	1,299
A010040	한국내화	75.9	62.2	13.7	X	X	94	883	957
A300720	한일시멘트	75.8	75.8	0.0			2,587	8,482	12,848
A104700	한국철강	75.7	66.5	9.2	X	X	360	2,616	3,408
A107590	미원홀딩스	75.5	75.3	0.2			155	1,997	1,728
A036530	SNT 홀딩스	75.4	64.1	11.3	X	X	3,950	9,799	7,614
A006220	제주은행	75.3	75.3	0.0			3,826	3,262	3,523
A002100	경농	75.3	66.8	8.5			76	2,154	1,814
A307950	현대오토에버	75.3	75.3	0.0			3,074	8,750	38,915
A008870	금비	75.2	57.0	18.2			122	687	573
A018670	SK 가스	75.1	72.3	2.8			7,117	24,999	19,646
A329180	HD 현대중공업	75.0	75.0	0.0			27,368	13,870	352,873
A078000	텔코웨어	74.7	30.6	44.1	X	X	43	950	1,196
A475560	더본코리아	74.4	74.4	0.0			340	1,498	3,802
A049770	동원 F&B	74.4	74.4	0.0			376	10,190	7,554
A011280	태림포장	74.4	71.6	2.8			85	2,227	1,593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74.4	74.4	0.0			7,521	54,622	731,669
A280360	롯데웰푸드	74.1	69.1	5.0			3,006	5,516	10,644
A009770	삼정펄프	74.1	74.1	0.0			127	2,287	707
A034590	인천도시가스	74.0	68.2	5.8			1,655	1,800	1,100
A047050	포스코인터내셔널	73.9	70.8	3.1			12,098	35,707	86,994
A117580	대성에너지	73.8	72.7	1.1			164	1,121	2,120
A000140	하이트진로홀딩스	73.8	65.9	7.9			3,034	6,647	2,051
A484870	엠앤씨솔루션	73.8	73.8	0.0			1,156	2,630	11,790
A039570	HDC 랩스	73.7	62.2	11.5	X	O	500	890	2,370
A004840	DRB 동일	73.1	69.8	3.3			1,004	4,403	856
A016710	대성홀딩스	73.0	72.7	0.3			1,473	6,459	1,319
A004990	롯데지주	73.0	40.5	32.5	X	O	12,424	35,822	28,588
A000760	이화산업	72.8	72.8	0.0			108	825	316
A111380	동인기연	72.8	68.4	4.4			154	1,402	882
A017390	서울가스	72.6	51.3	21.3	X	X	456	10,897	2,825
A019440	세아특수강	72.5	69.9	2.6			149	2,430	1,172
A094280	효성 ITX	72.4	67.9	4.5			48	526	1,395
A001270	부국증권	72.3	29.6	42.7	X	X	3,638	4,466	3,629
A381970	케이카	72.1	72.1	0.0			130	937	7,314
A001460	BYC	71.9	71.4	0.5			157	5,387	2,142
A137310	에스디바이오센서	71.7	70.0	1.7			1,290	19,443	14,086
A000300	DH 오토넥스	71.6	71.6	0.0			28	−1,540	1,616
A126720	수산인더스트리	71.2	69.7	1.5			1,724	3,639	3,714
A025530	SJM 홀딩스	71.0	61.7	9.3			654	1,424	503
A005820	원림	70.9	60.4	10.5	X	X	224	990	334
A003280	흥아해운	70.8	70.7	0.1			455	186	3,751
A101530	해태제과식품	70.8	61.9	8.9			99	2,034	1,986
A229640	LS 에코에너지	70.7	69.7	1.0			423	670	10,213
A000670	영풍	70.6	64.2	6.4			2,388	38,266	7,070
A377740	바이오노트	70.5	69.8	0.7			927	14,345	5,082
A145990	삼양사	70.4	64.1	6.3			1,336	5,945	5,115
A004890	동일산업	70.2	58.5	11.7	X	X	622	4,089	1,045
A284740	쿠쿠홈시스	70.2	70.1	0.1			1,716	5,554	5,778
A000050	경방	70.1	61.0	9.1			305	7,767	1,974
A271940	일진하이솔루스	70.0	70.0	0.0			198	338	4,430

주 1) 최대주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주 2) 자사주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의 5% 이상인 기업인 경우 공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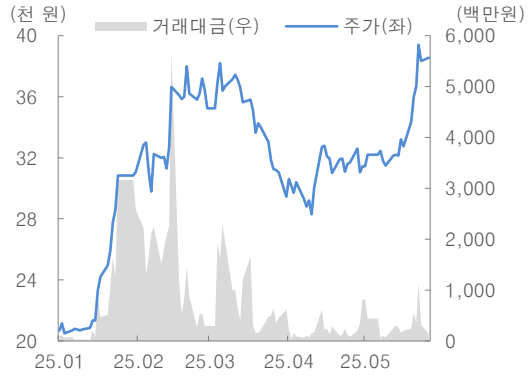
자료: DART,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인포바인 지분(%) 보유 구조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5. 인포바인 주가 추이



자료: Qual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자사주 비중을 초과하는 코스닥 기업 (단위: 억 원)

코드	기업명	지분율(%)[주1]			추가 취득 및 처리 계획[주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시가총액
		합산	최대주주	자사주	취득	처분/소각			
A136150	원일티엔아이	1.7	0.0	1.7			31	280	2,368
A126700	하이비젼시스템	32.3	16.0	16.3	X	O	1,250	2,581	2,162
A376900	로킷헬스케어	0.5	0.0	0.5			43	–1,069	1,770
A093520	매커스	57.2	11.0	46.2	O	X	798	1,389	1,986
A096240	크레버스	48.6	24.3	24.3	X	O	203	795	1,574
A115310	인포바인	70.9	17.4	53.5	O	O	140	1,224	1,201
A099750	이지케어텍	1.7	0.0	1.7			125	112	1,247
A081180	쎄크	0.2	0.0	0.2			18	–	1,137
A049960	셀바이오텍	52.3	25.1	27.2	X	X	182	1,293	1,199
A950110	SBI 핀테크솔루션즈	4.5	0.0	4.5			0.2	0.02	1,176
A166480	코아스템켐온	32.6	12.0	20.6	X	X	13	–952	1,012
A027050	코리아나	39.5	15.0	24.5	X	X	123	320	948
A188040	바이오포트	1.5	0.0	1.5			94	180	571
A073110	엘엠에스	65.3	30.3	35.0	미정	미정	150	665	561
A033200	모아텍	35.8	0.0	35.8	0	0	130	689	435
A051390	YW	53.6	24.3	29.3	X	X	196	742	422
A067010	이씨에스	11.4	0.0	11.4	X	X	89	455	352

주 1) 최대주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주 2) 자사주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의 5% 이상인 기업인 경우 공시 의무
자료: DART,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5 년 자사주 취득 현황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2025년 5월 29일 기준, 올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26개사(코스피 45개사, 코스닥 81개사)였다. 특히, 2월에 신탁계약 체결 기업 수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면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약 15,24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에스에프에이, 이엠텍, 젝시믹스는 각각 2회씩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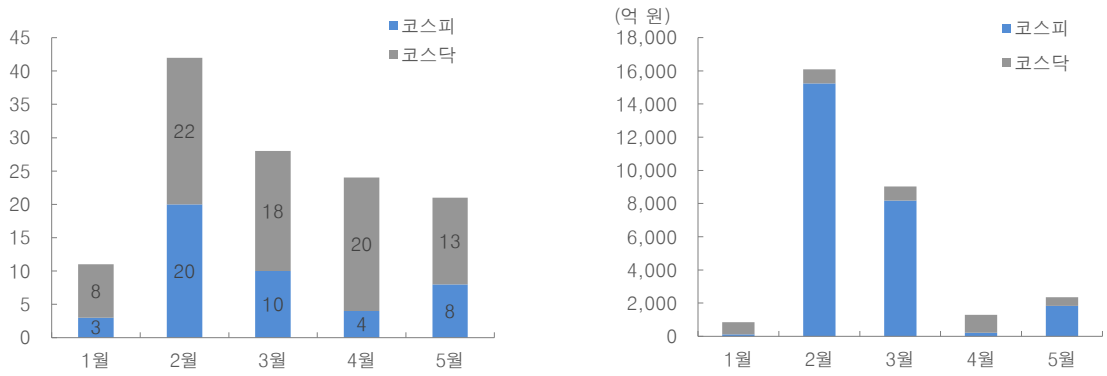
직접 취득 결정, 코스피 중심으로 대규모 진행

동일 기간 직접 자사주 취득 결정을 공시한 기업은 총 96개사(코스피 51개사, 코스닥 45개사)였다. 직접 취득의 경우 역시 2월이 가장 활발했으며, 특히 코스피 기업의 취득 규모가 39,643억 원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5개월 동안 KB금융, 미스토홀딩스, 메디톡스, 미원상사, 현대그린푸드, 풍산홀딩스, 아이디스, 코텍, 동남합성, 태웅로직스는 각각 2회 직접 취득을 결정했고, 인포바인은 3회, 셀트리온은 5회나 직접 취득을 공시하며 자사주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자사주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 속 기업의 전략적 자사주 활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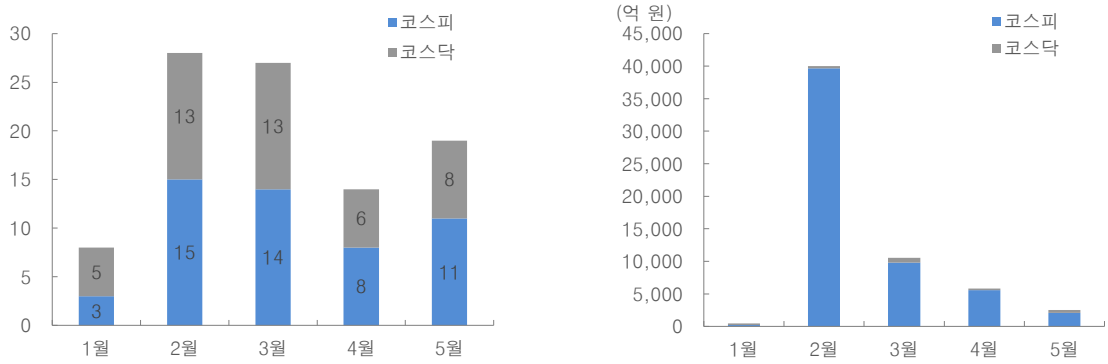
이는 자사주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주 관리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자사주 보유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략적 리스크와 투자 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6.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기업 수와 체결 규모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7. 자사주 직접 취득을 결정한 기업 수와 규모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6. 올해 들어 2 회 이상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체결, 직접 취득을 결정한 기업 (단위: 억 원)

코드	기업명	지분율(%)[주1]			추가 취득 및 처리 계획[주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시가총액
		합산	최대주주	자사주	취득	처분/소각			
A056190	에스에프에이	64.6	43.9	20.7	X	X	3,252	10,180	7,613
A091120	이엠텍	21.1	15.0	6.1			224	1,206	1,945
A337930	젝시믹스	45.7	45.0	0.7			292	489	1,766
A105560	KB 금융	15.8	8.4	7.4			307	362	404,154
A081660	미스토홀딩스	43.6	35.9	7.7			5,705	16,539	21,725
A086900	메디톡스	27.3	17.4	9.9			519	4,325	12,313
A002840	미원상사	64.0	61.1	2.9			337	4,109	8,678
A453340	현대그린푸드	51.5	50.8	0.7			804	776	5,679
A005810	풍산홀딩스	53.1	48.7	4.4			317	7,786	4,686
A143160	아이디스	57.2	47.5	9.7			447	1,618	1,630
A052330	코텍	67.5	40.1	27.4	O	X	907	2,730	1,610
A023450	동남합성	56.6	54.3	2.3			38	526	1,199
A124560	태웅로직스	43.5	38.9	4.6			683	2,394	1,111
A115310	인포바인	70.9	17.4	53.5	O	O	140	1,224	1,196
A068270	셀트리온	32.7	28.3	4.4			8,291	36,292	353,925

주 1) 최대주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주 2) 자사주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의 5% 이상인 기업인 경우 공시 의무
자료: DART,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리포트 발간 목록

발간일	제목	작성자	종류
2025.06.02	자사주와 지배주주 지분율	이경연	이슈
2025.05.16	거버넌스, 너 뭐 돼	이경연	심화자료
2025.04.21	방위산업, ESG 투자관점의 새로운 해석: "안보(Security)"	이경연	이슈
2025.04.02	2025 년 주주총회 리뷰: 주주제안 분석	이경연	이슈
2025.03.13	상법 개정 논쟁으로 살펴본 韓 주식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경연	이슈
2025.03.04	2025 년 주주총회 키워드: #배당절차개선, #행동주의	이경연	이슈
2025.02.21	행동주의, 기업공격인가 밸류업인가	이경연	심화자료
2025.02.05	과도기적 불편함 – 트럼프 2.0 시대의 지속가능투자	이경연	이슈
2024.12.17	기후금융과 잠재적 기회	이경연, 위정원	심화자료
2024.11.28	논란의 'K-밸류업 지수' 거버넌스(G)로 차별화	이경연	이슈
2024.10.02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경연	심화자료
2024.09.24	한국의 거버넌스 중심의 개혁 – 자사주 소각 증가의 배경	이경연	이슈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연)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